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김희수* · 홍성훈** · 윤은종***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의 형성을 돕기 위한 부모의 진로지도 및 상담적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진로정체감과는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진로결정, 진로정체감간에는 모두 상관이 있었다. 넷째,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진로결정, 진로정체감과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 모두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진로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볼 때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진로결정, 진로정체감에 있어서 상호작용 효과가 높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진로결정과 진로정체감 형성에 부적의 상관을 나타내 보였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부모-자녀간의 어떤 의사소통방법과 진로지도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촉진하는지에 대하여 제언하고 있다.

주제어 : 청소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 중앙교육과학연구소 연구원

** 건양대학교 사범보육계열 교수

*** 동아인재대학 청소년상담교육학과 조교수

I. 서론

교육은 인간이 일생동안 일을 잘 수행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김희수, 2004b, 2004c; 윤은종·김희수, 2001). 특히, 청소년기는 교육을 통해서 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인 교양, 직업관, 그리고 직업능력을 동시에 배양해가는 과정이다. 즉 청소년기는 점차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은 학교교육뿐 아니라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최근에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의 청소년 교육은 과거처럼 획일적인 지식전달 서비스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진로교육을 병행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볼만하다(김희수, 2004a).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선택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는 자녀들에게 ①생계를 위한 수입 혹은 방법과 수단을 제공하고, ②일상생활을 규칙화하며, ③개인차의 가치를 확인해주고, ④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⑤많은 유익한 경험을 통해 자아실현을 돕는 발판(scaffolding)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이무근·원상봉, 2000).

이 때문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적과 진로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김명자, 1991), 부모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 중의 하나를 성공적인 자녀교육이나 자녀의 직업 등에 관심을 둔다는 점이며, 또한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자녀간의 촉진적 의사소통을 기대한다는 연구결과(김희수, 2004b; 김희수·윤은종, 2005; 송명자, 1996)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그동안 청소년기의 자녀들에 대한 자기효능감(김희수, 2004a, 2004b, 2004c)과 진로발달(임은미·장선숙, 2004)에 관련된 몇몇 연구들이 있었으나, 이들 연구들은 부모의 행동과 연계하여 청소년의 종합적인 진로문제를 다룬 것이라기보다는 교사나 학생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혹은 진로문제 그 자체에만 국한하여 연구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과는 달리 학교에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문제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해 볼 정보나 교육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만큼 가정에서의 자녀 진로에 대한 부모 역할은 학교의 연장선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자녀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행동과 연계된 종합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적성과 관계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고 장차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은 자녀양육이 거의 마무리되는 대학생시기보다 고등학교시기에 이루어지는 게 더 바람직하다(이무근·원상봉, 2000). 이는 자녀들이 좀더 일찍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준비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능력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시기에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결정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자녀들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지도나 상담적 개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연구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진로관련 변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셋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관련 변인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넷째, 지각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예언할 수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변인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일 것이다. 가정이라는 공간은 부모와의 끊임없는 촉진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습득된 경험은 청소년의 정서발달 및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자녀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는지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지도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내·외적 태도나 행동을 총괄한다(김희수, 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사회적 특성이나 민족적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학자에 따라서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여러 가지로 구분한다. 예컨대, Becker(1964)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온정-적대, 제한-허용으로 구분한 후 '온정'에는 수용, 애정, 승인, 이해, 자녀중심의 행동, 빈번한 설명, 의존적 행동에 대한 긍정적 반응, 칭찬 등을 포함시켰으며, '적대'에는 거부, 질책, 부모의 부정적 반응 등을 포함하였다. '제한'에는 자녀들의 예의범절, 배변연습, 정리정돈, 소란 등에 대한 부모의 통제, '허용'에는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를 들었다. Rohner(1991)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수용-거부 이론(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PART)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행동, 인지, 정서발달에 있어서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의 성격에 대해 부모의 수용과 거부의 결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데 초점을 두었다. Barnes와 Oslon(1982)은 부모-자녀간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부정적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고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였다. 첫째, 개방적 의사소통(open family communication)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둘째, 역기능적 의사소통(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은 가족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또한 Birch와 Ladd(1997)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수용-거부영역은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 정도를, 자율-통제영역은 자녀를 자율적 태도로 대하는 정도를, 과잉-비과잉 영역은 자녀에 대한 관대함 정도를 나타내는 태도이다(김희수, 2004a에서 재인용).

이처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아닌지에 따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Barnes와 Oslon(1982)이 대별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自己效能感, Self-efficacy)이란 넓게는 자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감정을 말하며 학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학습자가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며, 이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혹은 자기 자신의 효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각된 효능성(perceived efficacy)’ 혹은 ‘자기 효능성에 대한 신념

또는 기대(belief or expectation of self-efficacy)'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박아청, 2002). 즉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성공에 필요한 신체적, 지적, 감정적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자기효능감은 결과 기대(outcome expectancy)와 구별되는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특정한 행동 후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후견(後見, afterthought)의 개념이고 효능성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수행할 행동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이기 때문에 선견(先見, forethought)의 개념이다(김아영, 1998). 사람들은 과거경험에 비추어서 선견, 즉 효능기대를 설정하여 동기를 유발시키고 행위를 예상한다. 그리고 행위를 하고 난 후에 결과를 예상한다. 이러한 효율성에 대한 기대는 성취상황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활동을 선택하고, 노력을 투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를 보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효율성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고 클수록 그 개인은 과제수행 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더욱 끈기 있게 매달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이란 우리들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분석적 사고나 학문적 수행과 같은 인지적 능력은 자신의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진로설계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고, 낮은 자기효능감은 불안, 무력감, 우울 또는 수치심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기효능감과 행위, 정서 및 인지적 과정간에는 상호작용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시도하고자 하는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노력의 양과 지속, 인내, 사고패턴, 각성, 궁극적인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김아영, 2001; 박영신, 1997).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라는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김아영, 2001; 박영신, 1997; 장희진 ·

양용칠, 2003). 첫째, 자신감이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혹은 신념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혹은 신념의 정도라고 축소된 의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정을 통해 조성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표출된다. 둘째, 자기조절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과제난이도는 개인이 어떤 수행 상황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어떤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진로결정과의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진로결정 수준

청소년기는 불확실성과 역할혼미의 연속선상에 놓여있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부족해 자기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신의 미래와 진로문제로부터 오는 막연한 불안감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김희수, 2003). 일반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은 대학의 전공 및 직업 선택의 확신 정도(Harren, V. A., 1979), 자신의 개인적 특징이나 기회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또는 미결정 정도에 대한 반작용(Osipow, S. H., & Carney, G. C., & Barack, A., 1976) 등 여러 측면에서 조명되는 개념으로서 학생들의 학업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의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결정의 정도를 의미한다(임은미·장선숙, 2004). 진로결정 수준이 낮은 학생들, 즉 진로미결정 (career indecision)의 정도가 심한 학생들은 상담자가 진로정보, 흥미검사, 적성검사, 능력평가 등 다양한 상담적 개입을 시도해도 여전히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진로결정상에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Herring,

R. D., 1998).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연구는 진로미결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그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이는 진로미결정과 우유부단함으로 대별하고 있는데(Hartman, B. W., & Fuqua, D. R., 1982), 전자는 상황적으로 진로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며, 후자는 생활과 행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진로미결정 유형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 검사는 진로미결정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자신에 대한 자아상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진로 선택 및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김희수, 2003). Miller-Tideman과 Tideman(1990)은 자기 자신을 명확히 이해한 사람 즉,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점진적으로 자신의 진로 유형을 인식하고 실행해 나간다.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동기부여와 의사결정 능력 면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가지며 자신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Harter, S., 1990). 또한 낮은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높은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수행한 일에 대하여 항상 불만족스럽게 여긴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인지적·정의적 변인으로서 자기의 일에 대한 준비, 계획, 시행,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Rosenberg, M, & Simmons, R. G., 1971).

또한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자아개념과 일치되는 직업적 선택을 하는 반면에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욕

구, 주변 사람들의 기대 등과 같은 외적인 영향을 받기가 쉬워 자신이 가진 자아개념과 일치되지 못하는 직업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높다(Harter, S., 1990). 이 외에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에 비해 대학 학과 선택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으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확신이 크고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서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Osipow, S. H., Carney, G. C., & Barack, A., 1976).

국내 연구에서도 김원중(1984)은 중·고등학생의 자아와 진로의식 성숙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을 밝혔고, 김현옥(1989)은 진로태도 성숙과 자기효능감과 서로 상관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기학(1997)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태도 점수와의 단순상관을 살펴본 결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임은미와 장선숙(2004)은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이연숙(2000)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효능감, 진로결정간에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진로결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수용적일수록 자녀는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되고, 학교적응 외 진로문제, 자기효능감, 학업성적, 학습태도 등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며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이영·박경자·나유미, 1997; Birch, S. H., & Ladd, G. W. 1997). 그리고 부모의 행동이 자율적이고 수용적일 때 자녀의 정서지능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높인다(유효순, 2003).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진로결정의 영향력 변인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4개 고등학교(D, H, S, W고등학교) 2학년 남녀학생 2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수집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한 278명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남녀비율을 보면 남학생이 153명(전체 대상의 55.0%), 여학생 125명(전체 대상의 47.0%)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5학년도 2학기 초(2005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에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었으며 한 학교당 2개 학급씩 실시되었다.

2. 검사도구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검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sion(1982)이 개발하고 민혜영(1990)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지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대별되며,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 10문항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 10문항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검사지는 Likert 방식의 5점 척도이고 응답방법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보다 자유로운 감정 하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가족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게 되어있다. 민혜영(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전체적으로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위척도별 신뢰도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하위척도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개방적 의사소통	1,3,6,7,9,13,14,16,17	10	.82
역기능적 의사소통	2,4,5,10,11,12,15,18,19,20	10	.7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전체)		20	.82

2) 자기효능감 검사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아영과 차정은(1996)의 '자기효능감과 측정' 질문지에서 김아영(1997)이 재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했던 도구를 종합해 연구대상 연령에 적합하게 연구자가 재구성해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자신감에 관한 7개 문항, 자기조절효능감에 관한 12개 문항, 과제난이도에 관한 5개 문항 등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검사지는 Likert 방식의 5점 척도이고 응답방법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자기효능감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총문항수	Cronbach' α
자신감	2, 6, 8, 12, 15, 16, 19	7	.85
자기조절효능감	1, 3, 4, 5, 7, 9, 10, 14, 18, 21, 23, 24	12	.92
과제난이도	11, 13, 17, 20, 22	5	.81
자기효능감(전체)		24	.89

3) 진로결정수준 검사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등(Osipow, S. H., Carney, G. C., 1980)이 개발한 진로결정 검사(Career Decision Scale : CDS)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고등학생 이상의 성인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과 미결정성의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그가 경험하고 있는 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Likert 양식의 4점 척도로 자기보고식 18개 문항과 자유 반응형 문항 하나가 추가되어 전체 1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의 2개 문항은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 수준을 나타내며, 다음의 16개 문항은 교육과 진로미결정의 전제 조건을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은 피검자로 하여금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할 기회를 부여하나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검사에서 제외시키고 사용하지 않았다. 채점은 문항 1~2와 문항 3~18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는데 문항 1~2는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 수준을 의미하며, 문항 3~18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가 결정된 상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Osipow 등(1980)이 보고한 본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 및 .82였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진로결정수준 척도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진로확신수준	1,2	2	.82
진로미결정수준	3-18	16	.77
진로결정수준(전체)		18	.83

3) 진로정체감 검사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d, Daiger 및 Power(1980)가 개발한 MVS(My Vocational Situation)를 김봉환(1997)이 변안한 것으로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직업정보(occupational information), 장애(barriers) 등의 내용을 담은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방식의 4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으로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김봉환(199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Cronbach α)는 .80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검사, 자기효능감검사, 진로결정수준검사, 진로정체감검사는 2005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대전광역시 소재한 4개 고등학교(D, H, S, W고등학교) 2학년 남녀학생 27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학생이 153명(전체 대상의 55.0%), 여학생 125명(전체 대상의 47.0%)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의 협조를 구하여 실시되었으며 학교당 2개 학급씩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 1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연구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검사, 자기효능감검사, 진로결정검사, 진로정체감검사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표 IV-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V-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진로정체감기술 통계치

구 분	M	SD	Min	Max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아버지-개방적	34.28	9.96	16.00	48.00
	아버지-역기능적	31.45	7.64	14.00	45.00
	어머니-개방적	36.81	8.32	12.00	50.00
	어머니-역기능적	33.27	6.83	17.00	41.00
자기효능감	72.15	10.59	18.00	118.00	
진로결정수준	진로확신	4.42	1.53	3.00	8.00
	진로미결정	40.28	9.02	18.00	60.00
진로정체감	40.37	8.55	19.00	71.00	

척도별 만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각 척도별(50), 자기효능감(120), 진로확신(8), 진로미결정(64), 진로정체감(72)

연구문제 1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은 없었으나,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 보였다($r=.141, p<.05$).

<표 IV-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개방적	아버지의 역기능적	어머니의 개방적	어머니의 역기능적
자기효능감	.116	-.054	.141*	.038

* $p < .05$

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진로관련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의 진로관련 변인들 모두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촉진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진로에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단, 어머니와 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9, p < .05$).

<표 IV-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계

구 분	아버지의 개방적	아버지의 역기능적	어머니의 개방적	어머니의 역기능적
진로확신	.18*	-.13*	.29**	-.16*
진로미결정	-.20**	.17*	-.31**	.22*
진로정체성	.25*	-.15*	.28**	.09*

* $p < .05$, ** $p < .01$

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관련 변인들의 관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4>과 같다. <표 IV-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과 진로확신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192, p<.05$), 진로미결정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 보였다($r=-.226, p<.01$). 또한 진로정체감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r=.293, p<.01$)을 나타내 보였다.

<표 IV-4>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관련 변인들간의 관계

진로관련 변인	진로확신	진로미결정	진로정체감
자기효능감	.192*	-.226**	.293**

* $p<.05$, ** $p<.01$

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변인이 진로관련 변인들을 얼마나 예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관련 변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5, 6, 7>과 같다.

<표 IV-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진로확신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Beta	t
아버지-개방적(1)	0.040	0.010	0.239	3.426*
아버지-역기능적(2)	-0.003	0.012	-0.027	-0.283
어머니-개방적(3)	0.054	0.019	0.247	3.624**
어머니-역기능적(4)	-0.005	0.009	-0.046	-0.092
$R^2=0.118, F(4.027)=8.41, p<.01$				
(1)×(2)	-0.0001	0.001	-0.006	-0.969
(1)×(3)	0.0021	0.001	0.059	2.250**
(1)×(4)	-0.0002	0.001	-0.003	-0.694
(2)×(3)	0.0002	0.001	0.007	0.003
(2)×(4)	-0.0001	0.001	-0.001	-0.042
(3)×(4)	0.0003	0.001	0.011	1.621
$R^2=0.177, F(10.152)=7.22, p<.01$				

* $p<.05$, ** $p<.01$

<표 IV-5>에 제시되어 있듯이,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진로확신에 유의미한 예언을 나타내 보였다($t=3.426, p<.05$; $t=3.624, p<.01$). 이들의 설명변량은 11.8%($F(4.027)=8.41, p<.01$)이 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확 신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진로확신은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 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할 때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t=2.250, p<.01$). 이들 두 가지 경우의 설명변량은 17.7%($F(10.152)=7.22, p<.01$)이 었다.

다음으로, 지각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진로미결정에 어떠한 예언 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 로 진로미결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6>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Beta	t
아버지-개방적(1)	-0.0694	0.064	-0.173	-1.624*
아버지-역기능적(2)	0.1620	0.058	0.068	2.115
어머니-개방적(3)	-0.0326	0.081	-0.308	-3.402**
어머니-역기능(4)	0.0531	0.065	0.061	1.721
$F^2=0.134, F(4.118)=10.04, p<.01$				
(1)×(2)	-0.0112	0.003	-0.120	-2.043
(1)×(3)	-0.0023	0.004	-0.202	-3.071**
(1)×(4)	-0.0036	0.007	-0.049	-1.427*
(2)×(3)	-0.0052	0.006	-0.178	-0.437
(2)×(4)	0.0086	0.009	0.301	2.203**
(3)×(4)	-0.0017	0.004	-0.074	-0.836
$F^2=0.157, F(9.360)=7.28, p<.01$				

* $p<.05$, ** $p<.01$

<표 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만이 진로미결정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으며($t=-1.625, p<.05$; $t=-3.402, p<.01$), 이 두 변인의 설명변량은 13.4%($F(4, 118)=10.04, p<.01$)이었다.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할 때 진로미결정 수준이 가장 높아지는 것($t=2.203, p<.01$)으로,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할 때는 진로미결정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3.071, p<.01$). 이들 두 경우의 진로미결정 설명변량은 15.7%($F(9.360)=7.28, p<.01$)이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진로정체감을 얼마나 예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인으로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IV-7>과 같다.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진로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t=2.212, p<.01; t=2.354, p<.01; t=1.046, p<.01$). 이들 두 변인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변량은 13.6%($F(4, 437)=9.92, p<.01$)이었으며,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개방적 혹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 및 역기능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정체감은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할 때($t=3.014, p<.01$)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할 때($t=1.902, p<.05$) 유의미하였고, 반면 아버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개방적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할 때는 진로정체감이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 보였다($t=-2.331, p<.01$). 이들 세 가지 경우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변량은 23.3%($F(10.316)=8.65, p<.01$)이었다.

<표 IV-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SE	Beta	t
아버지-개방적(1)	0.0510	0.062	0.046	2.212**
아버지-역기능적(2)	-0.0450	0.096	-0.071	-0.724
어머니-개방적(3)	0.2120	0.058	0.140	2.354**
어머니-역기능적(4)	0.0300	0.043	0.084	1.046**
$F^2=0.136, F(4, 437)=9.92, p<.01$				
(1)×(2)	-0.0184	0.006	-0.134	-2.331**
(1)×(3)	0.0193	0.010	0.266	3.014**
(1)×(4)	0.0110	0.018	0.025	0.157
(2)×(3)	-0.0021	0.011	-0.029	-0.310
(2)×(4)	-0.0160	0.009	-0.165	-1.985
(3)×(4)	0.0102	0.016	0.288	1.902*
$F^2=0.233, F(10, 316)=8.65, p<.01$				

* $p<.05, **p<.01$

V. 논의 및 결론

인간은 일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실현해 나가고 진로의 선택에 따라 인생 대부분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이 결정되며 인간관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관계, 거주지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되고 개인의 생활양식이 결정된다. 궁극적으로 일은 한 개인의 일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가정에서 자녀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시기에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자녀들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정체감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지도나 상담적 개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첫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간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었으나,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 보였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기효능감, 진로결정간에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밝힌 김희수(2003)와 이연숙(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부모와 안정된 의사소통 관계를 가진 청소년들은 자기존중감이나 자기효능감이 높고 정서적으로도 평화롭고 적응력이 높은 반면에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된 청소년들은 부모를 배척하며 자신의 신체적·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다는 Rohner(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있음을 재 입증한 것이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높

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청소년들은 어머니에게 의존하려는 애착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의 진로관련 변인들 모두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진로에 효과적이 밝혀졌다. 단, 어머니와 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진로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촉진적 의사소통을 통해 부족한 분야에서는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 정서적 적응, 자기효능감, 정신적·신체적 건강, 진로결정 등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들(김희수, 2004b; Allen, J. P., Bell, K. L., & Boykin, K. A., 1994)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버지와는 달리 청소년들의 진로변인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수용적·긍정적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거부적·거절적 의사소통도 자녀의 진로문제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낮추는 데는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청소년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진로관련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성격이론이나 자기이론에 있어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적, 평가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심리적·인지적 경향으로서 자기 신념 또는 효능감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단서를 내리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진로미결정 수준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낮아진다는 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중·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의식 성숙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고(김원중, 1984),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간에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에서 변인간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밝힌 임은미와 장선숙(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부모는 평소에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진로정체감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상시에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나 촉진적 의사소통을 가치롭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넷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진로 관련 변인들을 얼마나 예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관련 변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진로관련 변인들에 대하여 유의미한 예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진로확신 면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태도가 상호작용할 경우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진로미결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할 때 진로미결정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면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할 경우 진로정체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할 때 역시 진로정체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진로미결정 수준을 낮추고 진로확신 및 진로정체감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 자녀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함을 나타내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나 지도 면에서 부모의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떤 원칙이나 규준을 무시

하고 자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보다 때로는 거절적·거부적 의사소통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만이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진로정체감과는 모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진로결정, 진로정체감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진로결정, 진로정체감과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진로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작용측면에서 아버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진로결정, 진로정체감에 상호작용 효과가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상호작용할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버지의 경우는 진로정체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진로결정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4개 고등학교 2학년 남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엔 그 한계가 있으며, 자료 분석 또한 학생의 공통점을 밝히는 데 주안을 두었으므로 성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더 폭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검사도구는 개방적,

역기능적이라는 두 개 척도만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척도를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세분화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검사도구 사용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수준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측정되었는바,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측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가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향자(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 통제성과 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중(1984). 진로의식성숙과 사회, 심리적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길(1997). 직업윤리와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김희수(2003). 신교육심리학. 서울: 한울출판사.
- 김희수(2004a).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행동과 애착안정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제52집 제2호, pp.501-518.
- 김희수(2004b).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제19집, pp.101-115.
- 김희수(2004c).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연구, 제17권 제2호, pp.35-53.
- 김희수·윤은종(2004).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5권 제2호, pp.93-115.
- 김희수·윤은종(2005).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진로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중앙교육과학연구소.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아청(2003). 자존감과 자기보호감 및 자기고양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3호, pp.257-282.
- 송명자(1996).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유효순(2003).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지능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제10권 제2호, pp.19-30.
- 윤은중 · 김희수(2001). 여대생의 취업준비와 취업실태에 대한 연구. 동아인재대학 산업연구소, 제8집, pp.113-121.
- 윤정혜(1991). 자아존중감, 성역할정체감,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무근 · 원상봉(2000). 직업교육과정과 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이연숙(200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 · 박경자 · 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준거개발연구. 아동학회지, 제18권 제2호, pp.131-148.
- 이재창(1994). 진로교육 발전방안 탐색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집, pp.80-119.
- 임은미 · 장석희(2004). 인터넷 활용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의 즉시적 효과와 지속적 효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18권 제4호, pp.139-154.
- 최윤화(2003). 청소년의 자아상과 가정의 심리과정적 변인과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7권 제3호, pp.351-372.
- 홍성훈(1998). 한국 대학의 학부제 형성에 관한 기초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llen, J. P., Bell, K. L., & Boykin, K. A.(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mother interactions and social functioning with pe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CA.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pp.427-454.
-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35, pp.61-79.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4, pp.119-133.
- Harter, S.(1990).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In S. S. Feldman & G. R. Elliott(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tman, B. W., & Fuqua, D. R.(1982).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adapted for college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Vol. 31, pp.69-77.
- Herring, R. D.(1998). Career counseling in schools : Multicultural and development perspectives.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Holland, J. L.(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Osipow, S. H., & Carney, G. C., & Barack, A.(1976). A scale of educational vocational undecidedness :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9, pp.223-243.

Rohner, R. P.(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Tharenou, P., & Harker, P.(1982). Organizational correlates of employee self-esteem.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67, pp.797-805.

Tolbert, E, L.(1980).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Woolfolk, A. E., & Nicolich, L. M.(1984). Educational psychology for teachers. Ea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in Adolescents

Kim, Hee-Soo* · Hong, Sung-Hun** · Yoon, Eun-J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in adolescents. For these purposes, the magnitude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fficacy, career-related variables was measured for 278 adolescents(153 boys, 125 girls). The methods used in analyzing the data are Pearson and multiple-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father's communication(open family communication-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and mother's communication(problems in family communication). Only mother's communication(open family communication)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variables. Third,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areer decision variables. Fourth, In sense of career decision variables, father's communication (open family communication) and mother's communication (open family communication) were significant.

Key Words : adolescents,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fficacy, career direction

투고일 : 10월 5일, 심사일 : 12월 5일, 심사완료일 : 12월 20일

* Jungang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Educational Sciences

** Konyang University

*** Dong-A Colledge